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동사의 의미 확장 연구:
영어 FALL과 한국어 ‘떨어지다’의
은유적 · 환유적 확장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미 화

동사의 의미 확장 연구:
영어 FALL과 한국어 ‘떨어지다’의
은유적 · 환유적 확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aning Extensions of
English FALL and Korean TTELECITA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미 화

동사의 의미 확장 연구:
영어 FALL과 한국어 ‘떨어지다’의
은유적 · 환유적 확장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영 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미 화

김미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영주 (인)

2019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
I . 머리말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2
1.3. 연구 방법	4
1.4. 논의의 구성	6
II . 이론적 배경	7
2.1. 인지언어학	7
2.2. 영상 도식	9
2.3. 개념적 은유	10
2.4. 개념적 환유	17
III . 영어 <i>fall</i> 과 한국어 ‘떨어지다’의 의미	19
3.1. <i>fall</i> 과 ‘떨어지다’의 공통 의미	19
3.1.1. 추락의 의미	19
3.1.2. 하락의 의미	22
3.1.3. 배당의 의미	25

3.1.4. 상태나 상황으로의 추락의 의미	26
3.2. <i>fa//</i> 에만 발견되는 의미	30
3.2.1. 감소의 의미	30
3.2.2. 속(屬)의 의미	31
3.3. ‘떨어지다’에만 발견되는 의미	31
3.3.1. 분리의 의미	32
3.3.2. 소멸의 의미	35
3.3.3. 소진의 의미	37
3.3.4. 도착의 의미	38
IV. 영어 <i>fa//</i> 과 한국어 ‘떨어지다’의 의미 비교	40
4.1. <i>fa//</i> 과 ‘떨어지다’의 공통점	40
4.2. <i>fa//</i> 과 ‘떨어지다’의 차이점	41
V. 결론	42
<참고문헌>	44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 자료 목록	5
<표 2> 영어 <i>fa//</i> 과 한국어 ‘떨어지다’ 비교	42

그림 목 차

<그림 1> <i>fall</i> 의 감정그릇 도식	27
<그림 2> 분리로부터 생긴 거리의 관점화	33
<그림 3> 분리로부터 생긴 소멸의 관점화	35
<그림 4> 감소로 인한 소진의 의미	37
<그림 5> 도착 의미의 관점화	38
<그림 6> 떨어짐은 도착에 대한 은유적 사상	39

ABSTRACT

A Study on Meaning Extensions of English FALL and Korean TTELECITA

Kim Mi-Hwa

Advisor : Prof. Choi, Young-ju, Ph.D.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spects of English *fall* and Korean *ttelecita* based on concepts of cognitive semantics, especially based on orientational metaphors, image-schemas, and perspectivization.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English *fall* and Korean *ttelecita* share their prototypical meaning, 'to move downward to a lower position.' In English expression *Apple fell off the tree* and Korean expression *pang-kum pis-pang-wul-i ttel-e-ci-ki si-cak-hayss-e*, English *fall* and Korean *ttelecita* similarly refer to 'to move downward to a lower position.'

However, in their extended meanings, considerable differences are observed. English *fall* only refers to what happen fortuitously. They never indicates intentional movement. Korean *ttelecita* refers to fortuity as well as intentionality. Another difference is that Korean *ttelecita* utilizes metonymy more frequently when compared with English *fall*, referring to 'separation,' 'disappearance,' and 'arrival,' which are not observed in English *fall*.

*Key words: image-schema, up-down orientational metaphor, metonymy,
perspectivization

1. 머리말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우리는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언어로 기술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객관적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에 의한 주관적 개념화이다(Lakoff & Johnson 1980, Kövecses & Radden 1998).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처리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머지 정보는 무시한다. 그러한 우리의 인지적 경향성은 언어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이 세계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언어가 인간 인지의 본질적인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언어 현상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 관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임지룡 2006: 4, Taylor 2002: 3). 따라서 언어의 변화와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어휘의 의미 확장의 근거를 찾고, 다른 언어권의 대응 어휘와 비교 분석하는 일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 관한 단서를 찾는 한걸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지의미론의 주장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언어권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한 어휘를 선택하여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영어 *fall*과 한국어 ‘떨어지다’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한국어 동사 ‘떨어지다’와 영어 동사 *fall*은 서로 다른 언어권의 유사한 개념을 가진 어휘이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존재하는 보편성으로 인해 서로 상이한 언어권의 어휘들이 같은 개념을 공유하는 경우는 널리 편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원형 의미에서 같은 개념을 공유하는 동사 *fall*과 ‘떨어지다’의 의미 확장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어떠한 언어 현상 때문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동 동사의 의미 확대 현상에 관한 연구(정규식, 1995), *take*를 중심으로 한 의미 확장 양상의 개념화 과정에 관한 연구(김명숙, 2003), 허구적 이동의 인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김준홍, 2012), *get*의 의미 확장에 관한 연구(김은경, 2012), 영어와 한국어 이동 의미 확장 양상 비교 연구(하선정·김태호, 2014), 이동 동사 *come/go*의 의미에 관한 연구(박주영, 2010/ 조경윤, 2005/ 이미영, 2016/ 이정은, 2007/ 추가영, 2014/ 주보현, 2011/ 노상희, 2002) 등과 같이 의도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주로 연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의도성이 약한 동사 *fall*과 ‘떨어지다’를 대상으로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인지의미론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사의 의미 확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크게 하나의 언어권에서 어휘의 의미를 분석한 사례와 서로 다른 언어권의 어휘의 의미를 비교 분석한 사례로 대별된다. 하나의 언어권에서 어휘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정규식(1995), 김명숙(2003), 김은경(2012), 김선희(2015) 등이 있다.

정규식(1995)은 이동 동사류 *run*, *walk*와 *creep*의 의미확대 현상을 인지문법의 틀 안에서 은유, 환유, 주관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분석하였다.

김명숙(2003)은 동사 *take*의 다양한 의미들의 상호 관련성을 영역 이동¹⁾, 프로파일, 활성 영역 불일치²⁾ 이론을 통해 개념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동사

-
- 1) 모든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 하나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 이상의 인지영역들과 관련하여 명시되는 것이라는 가정이다. 예를 들면 [FINGER]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HAND]라는 영역이 전제되어야 하고 [HAND]는 [ARM], [ARM]은 [BODY]라는 영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영역은 인지 개체로 어떤 한 어휘의 관습적 의미값과 언어 기술이 어휘 자체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적 지식과 분리시킬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김명숙 2003: 29 참조)
 - 2) 활성영역이란 언어표현으로 묘사된 주어진 관계에 대해 의미 서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Langacker 1991b: 190)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I'm in the phone book*에서 *I*는 물리적 개체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진 의미 관계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활성영역이며, 실제 언어현상에서

*take*가 지니는 다양한 활성역들의 전환을 통해 한 문장의 중의적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활성역 확장이나 활성역 전환, 다양한 인지 영역으로의 전환, 주관화 과정과 윤곽 전환을 통해서 *take*의 다양한 의미들 간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하였다.

김은경(2012)은 동사 *get*의 의미를 가족유사성과 원형범주화이론³⁾을 기저로 확장 양상을 분석하였다. *get*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 범주는 의미자질의 유무에 따라 가장 원형적인 것에서 가장 덜 원형적인 것까지 단계적으로 의미망 구조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선희(2015)는 인지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동사 *make*의 원형 의미를 설정하고, 나머지 다양한 의미들을 원형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들이라는 가정하에 *make*가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하나의 언어권 내에서 동사의 의미 확장을 연구한 것 뿐 만 아니라 두 언어권의 유사한 동사의 의미 확장 및 의미 확장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힌 연구도 다소 발견된다.

김지애·최영주(2013)는 영어의 *kill*과 한국어의 ‘죽이다’의 의미 확장의 근거와 확장 과정에 나타난 두 언어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 중 어떤 단계가 환유적으로 관점화되는가에 따라 은유적 의미가 달라짐을 밝혔다. 두 언어의 확장 의미들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의미 확장과정에서 이벤트의 구성 요소 중 어느 단계를 선택하여 관점화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 산 구두가 나를 죽이네’와 *These shoes are killing me*와 같은 표현에서는 죽음의 여러 단계 중 고통단계가 환유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런 활성 영역과 언어표현으로 지시되는 윤곽이 일치되지 않음에도 정상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김명숙, 2003: 34-35 참조)

3) 원형(prototype)이란 어떤 범주 안에서 다른 구성원에 비해 가장 좋은 보기로 간주되거나 그 범주의 대표적이고 가장 명확한 보기를 말한다. 흔한 예로서 ‘참새’와 ‘까치’는 새의 범주를 대표할 만한 전형적, 이상적 ‘보기’이다. ‘새’의 범주 안에는 ‘참새’나 ‘까치’처럼 ‘새’다운 보기가 있고 ‘박쥐’나 ‘펭귄’처럼 ‘새’같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새’의 범주에는 ‘새’라는 개념의 중심에 가까운 것이 있고 아울러 중심과는 거리가 있는 주변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임지룡, 1993 참조)

하선정·김태호(2014)는 영어 이동 동사 *go/come*과 한국어 이동 동사 ‘가다/오다’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를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두 언어에 나타난 이동 동사의 사용 양상의 차이와 이동 동사 *go*와 *come*의 직시성⁴⁾의 차이를 비교 제시하였다. 서술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병합’과 ‘분리’의 개념을 통해 이동 동사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영주(2017)는 영어와 한국어의 ‘먹다’개념에 관련된 은유를 비교 분석하였다. 은유적 개념화에 자주 사용된 ‘섭취 과정(eating process)’의 단계를 흡입(intake), 저작(mastication), 삼킴 (swallowing), 소화(digestion)의 단계로 나누어서 비교 고찰하였다. 영어에서는 ‘저작’단계가 강하게 부각됨으로써 ‘괴롭하다, 파괴하다, 제거하다’의 의미로 확장되었고, 한국어에서는 ‘흡입’단계에 관점화가 이루어져 ‘수용하다, 더하다, 소유하다’의 의미로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짐을 밝혔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여 영어의 *fall*과 한국어의 ‘떨어지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fall*과 ‘떨어지다’의 원형 의미는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하향 위치 이동’이다.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이다. 이러한 원형 의미를 공유한 *fall*과 ‘떨어지다’는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각자의 확장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미들을 파생시킨다. 본고는 기본 의미가 확장되는 인지 과정을 살펴보고, 의미 비교를 통해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1.3 연구 방법

우선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영어의 *fall*과 한국어의 ‘떨어지다’의 의미 수집을 위해 [Longman English Dictionary Online]과 [Lexico English

4) 직시(Deixis)란 지시하는 대상이 늘 결정된 상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화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현상을 가리킨다. 직시는 화맥이 중요하다. 직시적 표현은 크게 인칭, 시간, 장소, 사회적 직시로 나뉜다. 발화의 맥락을 이루는 요소들을 직접적인 언어 표현으로 가리키는 현상을 말한다. (양용준 2014 참조)

Dictionary powered by Oxford]에서 *fall*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였고, 예문과 용례의 제시는 주로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와 [인터넷다음영어사전]을 활용하였다. ‘떨어지다’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의미를 참고하였으며, 국립국어원의 [한국어영어학습사전], [네이버국어사전], 국립국어연구원의 [우리말샘]에서 예문들을 참고하였다. *fall*과 ‘떨어지다’의 관용어나 속어의 예문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Deignan(2005), Grice & Stefanowitsch(2006)는 실제의 언어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어휘의 은유적 의미를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는데, 본고는 사전적 의미를 참고함과 동시에 실제의 말뭉치 언어자료와 신문, 인터넷 사전, 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예문 추출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은 분석 대상 자료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 대상 자료 목록

자료 구분	한국어	영어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 영어 학습 사전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다음국어사전 네이버국어사전	Longman English Dictionaries online Lexico English Dictionary powered by Oxford
말뭉치 예문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인터넷 다음 영어 사전 네이버 영어 사전
신문	농민신문 기획 연재 한겨레 신문 시사IN	REUTERS The Guardian
도서	김원일의 노을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 이기영의 봄	G Ritzer · P Dean Globalization: A Basic Text

본 연구를 위해 먼저 동사 *fall*과 ‘떨어지다’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조사한 다음 원형성을 검토하여 그 중 중심이 되는 원형 의미(prototypical meaning)를 설정하고 나머지 다양한 의미들을 원형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로 보고 한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의 내부적 관련성을 파악한다. 각 어휘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의미론적 자질에 따라 몇 가지 의미군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의미를 중심으로 확장 과정에 어떠한 인지적 기제가 작용했는지 밝힘으로써 두 언어의 언어적 차이를 고찰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1.4 논의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동사의 의미 확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그 중 영어 동사와 한국어 동사의 대응 어휘의 의미적 차이를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김지애·최영주(2013)의 ‘Comparison of English KILL and Korean CWUKITA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emantics’와 하선정·김태호(2014)의 ‘영어와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 확장 양상 비교 연구’, 최영주(2017)의 ‘Comparison of the Concept EAT as a Metaphorical Source in Korean and English’ 등의 연구를 소개하였으며 본고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인지언어학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인지의미론의 핵심 분야 중 은유이론과 환유이론 그리고 *fall*의 의미 확장에 기여한 지향적 은유에 대한 설명과 그에 관련된 구체적 예문을 통해 의미 확장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은유적 사상의 근원이 되고 환유적 의미 변형의 토대가 되는 영상 도식, 그리고 환유이론을 소개함으로써 본고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3장은 본 논고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영어의 *fall*과 한국어의 ‘떨어지다’의 의미들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기술하였고 원형 의미를 설정하여 확장 의미들과의 내적 관련성을 은유적·환유적 기제에 의해 고찰해 보았다. 또

한 원형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들을 의미적 자질에 의해 *fall*의 의미군은 추락, 하락, 감소, 배당, 속(屬), 상태나 상황으로의 추락의 6가지 의미군으로 분류하여 확장 양상을 분석하였고 ‘떨어지다’의 의미군은 추락, 하락, 감소, 분리, 소멸, 배당, 상태나 상황으로의 추락, 도착의 의미군으로 분류하여 확장 양상을 분석하고 두 언어에 존재하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찾아보았다.

제4장은 3장에서 분석한 *fall*과 ‘떨어지다’의 의미들에서 발견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두 어휘의 의미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로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해보고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아울러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연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II . 이론적 배경

2.1 인지언어학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은 인간의 언어와 마음, 그리고 신체적 혹은 사회적 경험 간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이다(Evans et al. 2007: 1).” 인지언어학은 198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학문으로 형식주의 언어학의 지나친 추상성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인지언어학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촘스키 언어학은 언어능력을 다른 인지능과 달리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체계로 보았다. 언어능력이란 말을 배우는 특별한 구조로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생물학적 기제라고 간주함으로써 언어의 발달과 생성에 작용하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정신기능의 역할을 무시하였다. 언어능력을 컴퓨터 등으로 재현할 수 있는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연산규칙의 총화라고 본 것이다.

촘스키의 언어관에 반대하여 나타난 인지언어학은 언어를 보다 더 일반적인 인지능력 내에 위치시키는 언어연구의 접근법을 가리킨다(Taylor 2002:

589).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언어학에서 언어능력을 다른 인지능력과 무관한 특별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았던 것과 달리 일반적 인지능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지룡(2006: 4)에 따르면 인지언어학은 인간이 몸과 마음, 지식, 개념체계, 경험, 지각, 문화적 배경에 기초하여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 내용을 조직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나아가 문화를 일구어가는 데 작용하는 인지의 모든 과정에서 핵심인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여 의미를 만들어내고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지언어학은 그동안의 형식주의 언어접근법이 무시해왔던 의미의 문제를 언어학의 중심으로 가져다 놓았다. 의미는 언어의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다. 의미는 엄격한 논리적 규칙에 따라 상징을 조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통한 경험이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언어의 형태가 발달한다고 본다. 인간은 의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주체자이며 인간의 신체성, 감각, 지각, 인지 작용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라고 본다.

임지룡(2007: 56)에 의하면 인지언어학의 핵심영역인 인지 의미론은 경험과 신체화된⁵⁾ 인지, 언어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개념적 체계가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에 의존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언어가 마음을 반영하고 또한 그것은 마음의 작용 방식을 밝혀주는 창구로 간주된다. 인지언어학에서 개념적 구조의 본질은 신체화된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위-아래의 개념구조를 생각해볼 때 “그는 건강이 절정에 있다.” “그는 독감으로 쓰러졌다.”와 같이 건강 상태를 표현함에 있어 위는 긍정적, 아래는 부정적 가치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우리는 건강할 때 몸이 가볍고 위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반면, 몸이 병들고 아플 때는 몸이 무겁고 아래로 처지는 기분이 들어 눕게 된다. 이렇듯 몸을 통한 우리의 신체적 경험이 위-아래의 가치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은 의미 부여의 시발점

5) 임지룡(2007 신체화에 기초한 의미 확장의 특성 연구 참조)에 의하면 “추상적인 사고 과정이 우리 몸의 신체적 경험에서 출발된다는 뜻으로 언어는 신체와 정신을 가진 언어 사용 주체가 환경 세계와 상호 작용하면서 신체적 경험을 기반으로 획득한 전달 수단이다. 따라서 신체화는 인간 인식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의미 확장의 진원지이며 신체적 경험은 새롭고 추상적인 대상을 이해하는 준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 된다.

2.2 영상도식(Image schema)

인지의미론의 이론적 토대 중 영상도식(image schema)은 다양한 인지모형을 개념화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인지적 구성물이다(Johnson: 1987). Lakoff(1987: 267)에 따르면 “영상도식은 우리의 일상의 신체적 경험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다.” 라고 했다. 즉, 영상 도식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단순화된 도식이다. 추상적인 것을 시각화한 개념 구조로서 은유의 인지적 토대를 이룬다. Lakoff(1987)는 영상도식을 선개념적(preconceptual)체험으로 간주한다. 영상도식은 언어의 형성과 개념화에 앞서 존재하는 심리적 표상에 관한 인지능력이다. 예컨대, 위-아래 도식은 위-아래 방향성을 사용하려는 우리의 일상 경험의 경향성에 근거한다. 신체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위-아래 도식은 수많은 추상적 개념들의 토대를 이루며 더 추상적인 의미들을 발생시킨다.⁶⁾

임지룡(2017: 90)에 따르면, “영상도식의 일차적 근원은 사람의 몸이다. 우리는 신체를 통하여 ‘그릇’, ‘연결’, ‘중심-주변’, ‘부분-전체’, ‘균형’, ‘경로’, ‘원근’, ‘방향’을 지각하며, 이 원초적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과 부정의 가치를 부여한다.” 즉 반복되는 신체적, 물리적 경험에 기초한 영상도식을 통해 추상적 대상을 머릿속에 구조화한다는 것이다.

Lakoff(1987: 283)는 “은유적 사상(mapping)은 영상도식에 의해서 이해된다.”라고 했다. 은유적 사상은 구체물의 영역에서 추상물의 영역으로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추상적 의미는 우리의 구체적 경험이 만들어낸 기본 개념 구조로서의 영상도식에 의해 우리의 인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영상도식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세계에 대한 개념화가 가능하고 외부 세계

6) 예를 들면 「그릇」(CONTAINER) 도식은 우리에게 ‘안-밖’(IN-OUT)의 이해 방식을 주는 하나의 패턴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의 ‘안’과 ‘밖’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에 내부, 경계, 외부라는 구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Johnson은 이러한 구조를 설정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갖는 도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 경우 그것이 「그릇」 도식이다. 그는 이 도식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Johnson Mark, 1987 참조)

의 개체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어휘의 의미 확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2.3 개념적 은유 (Conceptual Metaphor)

인지언어학에서는 은유가 특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에 만연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그 사람 좀 차가워”,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 “시간 낭비 하지 말고 가자” 등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표현들이 모두 은유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더 접하기 쉽고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 개념을 이용한다. 은유는 어려운 추상적 대상 영역(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과 유사하면서 좀 더 쉬운 실제 영역(근원 영역)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은 돈](TIME IS MONEY)은유가 적용된 언어표현을 검토해 보자.

(1) [시간은 돈] (TIME IS MONEY)

- a. 당신은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You're *wasting* my time.)
- b. 이 도구는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This gadget will *save* you hours.)
- c. 나는 당신에게 줄 시간이 없어요.(I don't have the time to *give* you.)
- d. 나는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I've *invested* a lot of time in her.)
- e. 당신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군요.
(You don't *use* your time *profitably*.)

(Lakoff & Johnson 2006, 노양진 · 나익주 역: 27)

‘시간’이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목표 영역(target domain)에 해당한다. 반면 ‘돈’은 우리가 일상적 경험 속에서 쉽게 알 수 있

는 이미 개념화된 구체적 실체로서 근원 영역(source domain)에 해당한다. ‘돈’과 ‘시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근원영역인 ‘돈’이 목표영역인 ‘시간’으로 사상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돈’의 관점에서 ‘시간’을 이해한다. 이때 ‘돈’ 영역에 대한 경험과 ‘시간’ 영역에 대한 개념 사이에는 체계적인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Lakoff & Johnson(2006 노양진·나익주 역: 29)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돈인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고, 계획성 있게 쓸 수 있고, 현명하게 또는 서투르게 투자할 수 있거나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이해하고 경험한다.”라고 은유적 사상(mapping)을 설명하였다.

Lakoff & Johnson(2006 노양진·나익주 역)은 은유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고 할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있는 개념 구조로서 은유 없이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인지 원리로서의 개념적 은유는 “한 개념 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에 의해서 인지하는 개념화 장치”로 정의되고 있다(Lee 2001: 6, Kövecses 2002: 4).

임지룡(2006)의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와 ‘은유적 언어 표현(Metaphorical linguistic expression)’을 구별한다. ‘개념적 은유’는 사고하는 방식이며, 은유 표현은 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고 하였다(임지룡 2006: 34). 예를 들어 위 예문 (1)의 ‘시간’에 대한 언어 표현을 보자면 ‘낭비, 절약, 투자, 효율’과 같은 구체적 ‘돈’과 관련된 용어를 통하여 추상적인 ‘시간’을 개념화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간은 돈이다]라는 추상적 개념을 ‘개념적 은유’라고 하며, 개념적 은유를 언어적으로 구체화한 (1a-e)와 같은 표현을 ‘은유 표현’이라고 한다.

개념적 은유는 인지적 기능⁷⁾에 따라 구조적, 존재론적, 방향적 은유⁸⁾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Lakoff & Johnson 1980: 3-21, 임지룡 1997: 177-188, Kövecses 2002: 32-36). 그 중에서도 본 논문 *fall*과 ‘떨어지다’의 의미 확장에 자주 사용된 방향적 은유를 살펴보자.

7) 인지적 기능이란 개념적 구조의 충실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Kövecses(2002: 33-36)에서는 구조적 은유 > 존재론적 은유 > 방향적 은유의 차례로 규정하였다.

8)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는 임지룡(2006: 35-38)의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를 참고 바란다.

방향적 은유는 공간지향성을 지닌 영상도식 구조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지향적 은유라고도 일컫는다. Lakoff & Johnson은 지향적 은유는 위-아래, 안-밖, 앞-뒤, 접촉-분리, 깊음-얕음, 중심-주변 등의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우리 몸이 공간을 경험하고 지각하는 방식에 관련된 은유이다. 예를 들어 [행복은 위](HAPPY IS UP)에서처럼 ‘행복한’이 ‘위’방향이라는 사실은 *I’m feeling up today* (나는 오늘 기분이 **들떠 있다**)와 같은 표현을 만들어 낸다. 다음 예문에 나타난 지향적 은유를 살펴보자.

- (2) a. 그는 사랑에 **빠져** 있다. (He’s *fall in* love)
- b. 우리는 이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 (We’re *out of* trouble now.)
- c. 그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고** 있다. (He’s *coming out of* coma.)
- d. 그는 도취 상태에 **들어갔다**. (He *entered* a state of euphoria.)
- e. 그는 우울증에 **빠졌다**. (He *fell into* a depression.)

(Lakoff & Johnson, 2006 노양진·나익주 역: 71)

사랑, 두려움, 혼수상태, 우울함은 감정적 상태(state)이다. 이러한 상태들이 그릇으로 간주됨으로써 우리는 상태의 특별한 양상을 안과 밖의 경계를 가진 그릇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념화하며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위 (2)의 예문들은 위-아래, 안-밖 지향성과 관련된 지향적 은유의 개념이 적용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지향적 은유는 상호연관성을 지닌 각 개념들이 모여 상호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 체계를 조직하는 은유적 개념을 일컫는다(2006 노양진·나익주 역: 37).

지향적 은유 중 *fall*의 의미 확장에 영향을 끼친 ‘위-아래’ 은유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Lakoff & Johnson에 의하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은유도 그 체험적 근거를 떠나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며, 적절히 표현될 수조차 없다. 예를 들어 ‘많은은 위’는 ‘행복은 위’ 또는 ‘이성은 위’와는 매우 다른 종류의 체험적 근거를 갖는다. 개념 ‘위’는 이 모든 은유 속에서 동일하지만 이런 ‘위’은유의 근거가 되는 경험은 매우 다르다. 그것은 많은 다른 종류의 ‘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수직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에

들어옴으로써 다수의 상이한 은유를 만든다는 것이다(2006 노양진·나익주 역: 50). ‘위-아래’의 수직성에 개념화와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이 많아지는 것과 양이 줄어드는 것에 ‘위-아래’ 수직성 개념화가 이루어지는 것의 체험적 근거는 컵에 있는 물의 수면이 올라가고 내려옴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많은은 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할 때 실제로 마음이 들떠있다고 느끼게 되고 우울감이나 피로감 고독감 절망감 등을 경험할 때 몸과 마음이 아래로 처짐을 느끼는데 그러한 반복된 경험을 통해 ‘행복은 위’가 된다.

이렇듯 추상적 대상이 *fall*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도용하게 되는 데에는 ‘위-아래’ 은유의 역할이 크다. 우리의 물리적 체험과 문화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위-아래’ 공간화 은유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fall*의 확장 의미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Nagy(1974)가 심도 있게 연구한 ‘위-아래’ 공간화 은유를 간략히 살펴보자. 다음 (3)-(12)에 제시된 예문들은 노양진·나익주 (2006: 38-46)에서 발췌하였다.

기분이나 사기, 의욕 등이 ‘위’와 ‘아래’에 있다고 함으로써 기분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행복한 기분이나 느낌, 의욕이 넘치는 감정 상태는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긍정적 가치를 갖는 반면 우울한 느낌이나 기운이 없이 처져있는 심리 상태는 부정적 가치를 갖는다.

(3)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 [HAPPY IS UP; SAD IS DOWN]

- a. 나는 기분이 **들떠 있다**. (I'm feeling *up*.)
- b.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의욕이 솟는다**.
(Thinking about her always gives me a *lift*.)
- c. 그는 요즘 아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He's really *low* these days.)

수면이나 최면, 의식의 상태 등을 나타내기 위해 ‘위’와 ‘아래’에 있다고 함으로써 의식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잠에서 깬 상태나 의식이 있는 상태

는 ‘위’, 잠에 빠진 상태나 최면에 걸려있는 상태나 혼수상태는 체험적으로 ‘아래’의 위치가 된다.

(4) 의식은 위/ 무의식은 아래[CONSCIOUS IS UP; UNCONSCIOUS IS DOWN]

- a. 일어나라. (Get *up*.)
- b. 그는 최면에 **걸려있다**. (He’s *under* hypnosis.)
- c. 그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He *sank* into a coma.)

건강 또는 삶과 관련하여 ‘위’와 ‘아래’로 표현함으로써 건강의 좋고 나쁨이나 삶과 죽음을 나타낸다.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는 긍정적 의미의 ‘위’가 되고 질병에 걸린 상태나 죽음에 이른 상태는 ‘아래’이다.

(5) 건강과 삶은 위/아픔과 죽음은 아래

[HEALTH AND LIFE ARE UP; SICKNESS AND DEATH ARE DOWN]

- a. 그는 건강이 **절정**에 있다. (He’s at the *peak* of health.)
- b. 그는 독감으로 **쓰러졌다**. (He *came down* with the flue.)
- c. 그는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He *dropped* dead.)

지위나 힘, 권력과 관련된 ‘위’와 ‘아래’는 지위의 높고 낮음, 힘의 크기, 권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강한 경우는 ‘위’에 있는 것이고 힘이 약하거나 지위나 권력이 약할 경우는 ‘아래’에 있는 것이다.

(6) 통제를 하거나 힘을 갖는 것은 위/통제나 힘에 복종하는 것은 아래

[HAVING CONTROL OR FORCE ARE UP; BEING SUBJECT TO CONTROL OR FORCE IS DOWN]

- a. 그는 **높은** 지위에 있다. (He’s in a *superior* position.)
- b. 그는 나보다 힘이 더 **세다**. (He ranks *above* me in strength.)
- c. 그는 내 통제 **아래** 있다. (He is *under* my control.)

숫자, 소득수준, 실수의 빈도 등을 ‘위’와 ‘아래’로 표현함으로써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수량과 크기의 증가는 경험적으로 ‘위’가 되고 감소는 ‘아래’가 된다.

(7) 많음은 위/적음은 아래[MORE IS UP; LESS IS DOWN]

- a. 연간 출판되는 책의 숫자가 계속 **증가한다**.
(The number of books printed each year keeps going *up*.)
- b. 지난 해 내 소득이 **늘어났다**. (My income *rose* last year.)
- c.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수가 **적다**.
(The number of errors he made is incredibly *low*.)

다가올 일이나 예정된 일들을 ‘위’ 또는 ‘앞’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미래를 나타낸다. 예상되는 미래의 일이나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는 ‘위’또는 ‘앞’이 된다.

(8) 예견할 수 있는 미래 사건은 위(이고 앞)[FUTURE EVENTS ARE UP (and AHEAD)]

- a. **다가올** 모든 행사가 그 신문에 실려 있다.
(All *upcoming* events are listed in the paper.)
- b.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예정되어** 있어?
(What’s coming *up* this week?)
- c.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스럽다.
(I’m afraid of what’s *up and ahead of* us.)

지위나 경지, 사회계층을 ‘위’와 ‘아래’로 표현함으로써 층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낸다. 지위나 사회계층에서 높은 지위는 ‘위’이고 낮은 지위는 ‘아래’이다.

(9) 높은 지위는 위/낮은 지위는 아래[HIGH STATUS IS UP; LOW STATUS IS DOWN]

- a. 그는 **높은** 지위에 있다. (He has a *lofty* position.)
- b. 그는 **정상까지 오를** 것이다. (She’ll *rise* to the top.)

c. 그는 사회 계층의 **밑바닥**에 있다.

(He's at the **bottom** of the social hierarchy.)

일의 진행 상태, 상황, 일숨씨를 '위'와 '아래'로 표현함으로써 상태의 좋고 나쁨이나 숙련도의 질을 나타낸다.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좋을 때나 작업능력이 우수한 경우는 긍정적 가치로서 '위'이다.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숨씨가 좋지 않을 때는 '아래'로 개념화 한다.

(10) 좋음은 위/나쁨은 아래 [GOOD IS UP; BAD IS DOWN]

- a. 만사가 **잘 되어간다**. (Things are looking **up**.)
- b. 상황이 **최저** 상태이다. (Things are at an all-time **low**.)
- c. 그의 일숨씨는 **고급**이다. (He does **high**-quality work.)

수준, 성품, 도덕성과 관련하여 '위'와 '아래'는 의로움과 비열함, 미덕과 타락을 의미한다. 품격 있고 올곧은 성품과 도덕적인 인격인 경우는 '위'가 되고 비열함과 타락은 '아래'로 개념화된다.

(11) 미덕은 위/타락은 아래 [VIRTUE IS UP; DEPRAVITY IS DOWN]

- a. 그녀는 **고상한** 수준을 지녔다. (She has **high** standards.)
- b. 그녀는 **올곧은** 성품을 지녔다. (She is **upright**.)
- c. 그것은 **비열한** 짓이었다. (That was a **low-down** thing to do.)

이성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을 '위'와 '아래'로 표현함으로써 이성은 높은 경지로 감정은 낮은 경지로 개념화한다. 이성을 잃지 않고 냉철함을 유지하는 상태는 '위'이고, 감정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빠진 상태는 '아래'이다.

(12) 이성적인 것은 위/감정적인 것은 아래 [RATIONAL IS UP; EMOTIONAL IS DOWN]

- a. 그 토의는 **감정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이성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렸다**. (This discussion **fell to the emotional** level, but I

raised it back up to the rational plane.)

- b.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제쳐놓고, 그 문제에 대해 **고차원의 지적** 토의를 했다. (We put our *feelings* aside and had a *high-level intellectual* discussion of the matter.)
- c. 그는 자신의 감정을 **넘어설** 수 없었다. (He couldn't *rise above* his emotions.)

이러한 위-아래 은유⁹⁾는 앞으로 다룰 *fall*의 다양한 의미들의 확장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2.4 개념적 환유 (Conceptual Metonymy)

최근 들어 Panther & Radden(1999) 및 Barcelona(2000)의 등장과 함께 많은 인지언어학자들 사이에 환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은유뿐 아니라 환유도 단순한 언어 사용 현상이 아닌 인지작용의 핵심 기제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은유는 유사성(similarity)에 근거하여 사물이나 추상적 대상 등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반면 환유는 ‘한국 정부’를 ‘청와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인접성(contiguity)¹⁰⁾을 바탕으로 지시 대상과 관련 있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원 대상을 지칭하는 방식이다.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적 사상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이라는 두 영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면 환유적 사상(mapping)은 하나의 개념 영역 내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즉 은유가 목표영역을 이해시키기 위해 근원영역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환유는 하나의 동일한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인지 작용이다. 하나의 대상에 존재하는 여러 근접 자질 중 인지적으로 두드러진 자질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경제

9)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 있는 위-아래 공간화 은유는 W. Nagy(1974)가 분석하였는데 (10)-(19)예문은 2006 노양진·나익주 역: 38-46.을 참고하여 재인용하였다.

10) Radden·Kóvecses(1999)에 의하면 “환유는 하나의 개념(매체=vehicle)이 동일한 인지 모델(ICM)내에 있는 다른 개념(목표=target)에 심리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인지적 과정이다.”라고 하였다. ‘인접성’은 환유의 과정에서 선택되는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서의 ‘매체’와 이를 통해 이해의 대상이 되는 ‘목표’(target)사이의 개념적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이종열 2001: 174).

적으로, 보다 더 직접적으로, 보다 더 참신하게 접근하게 하는 인지 전략이다. 다음 예는 환유의 실제적인 예들이다.

- (13) a. 그 햄 샌드위치가 계산서를 기다리고 있다.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
b. 그는 사드를 즐겨 읽는다.
(He likes to read the *Marquis de Sade*.)
(13a-b 2006 노양진 · 나익주 역: 37)
c. 주전자가 끓는다.
d. 낮부터 벌써 한잔한 얼굴이다.
(13c-d 국립국어연구원, 2019, [표준국어대사전])

(13a-c) 예문에서 ‘그 햄 샌드위치’는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에 ‘사드’는 ‘그의 저서’에 ‘주전자’는 ‘주전자 속의 물’에 개념적으로 사상된다. (13d) 예문에서는 ‘한 잔 하다’라는 원인이 ‘술에 취하다’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종열(2007)에 의하면 “환유적으로 전이되어 다른 실재물을 지시하는 환유의 과정은 근원 영역의 한 가지 속성이 부각되어 목표 영역의 한 가지 속성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부각된 속성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실재물에 대해 적절하게 언급될 수 있는 요소로 제공 된다”라고 하였다(이종열 2007: 261-262). 예를 들면 ‘그 햄 샌드위치’와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은 동일한 개념 영역 내에 인접한 개념들로서 그 중 현저한 속성인 ‘햄 샌드위치’가 선택되어 주문한 사람을 지칭한다. (13d) 예문에서도 ‘원인’은 ‘결과’와 동일한 개념 영역내의 인접 요소들로 ‘원인’으로써 ‘결과’를 대신하고 있다.

하나의 인지 영역 내에서 한 개념 요소로써 다른 개념 요소를 대신하는 환유적 처리 과정은 ‘부분’을 이용해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전체’를 이용해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상(mapping)의 양방향성은 필연적으로 부각¹¹⁾이 뒤따르며 의미영역의 확대 및 축소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의 의미 분석에 사용될 의미 확장의 기제로서 환유적 처리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관점화(perspectivization) 또는 원근화법화라고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관점화라고 지칭하겠다. 사물이나 대상이 아닌 개

11) 환유적 과정에 부각이 필연적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구두를 맷다”라고 했을 때 근원 영역 ‘구두’가 목표 영역 ‘구두끈’으로 사상되는 과정은 환유적 사상에 의한 인지 영역의 축소이며 목표 영역에 대한 부각화 과정이 환기된다(이종열 2007: 261 참조).

념이나 정신적 프로세스 내에서 인지적으로 현저한 어떤 부분을 선택하여 전체를 지칭하게 될 경우도 환유적 관점화이다. 예를 들면 ‘영상도식’이라는 하나의 개념 구조를 목표영역으로 보았을 때 영상도식의 ‘전체’가 아닌 ‘부분’을 선택하여 부각이 일어날 때 전체의 개념은 부각한 부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떨어지다’의 영상 도식을 살펴보면 시점, 과정, 중점으로 진행되는 전체 도식 상에서 시점 부분을 선택할 경우 시점에서 발생하는 ‘분리’가 부각된다. 따라서 ‘떨어지다’는 영상 도식의 부분적 부각으로 인해 ‘분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화와 관련된 확장 의미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에서 ‘떨어지다’의 예문과 관련하여 설명을 이어가기로 한다.

III. 영어 *fall*과 한국어 ‘떨어지다’의 의미

3.1 *fall* 과 ‘떨어지다’의 공통 의미

*fall*과 ‘떨어지다’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지다.’라는 원형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동사로서, 3차원 공간에서의 수직 하향 이동을 의미한다. 즉, 낮은 곳으로의 위치 변화를 그 기본 개념으로 본다. 중력의 힘이 미치는 공간에서 지지력의 상실이나 부족으로 인하여 원래 위치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는 추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3.1.1 ‘추락’의 의미

다음 (14)의 예문은 *fall*이 물체의 물리적 추락을 뜻하는 원형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이다.

(14) a. Apple **fell** off the tree. [인터넷다음영어사전]

b. The leaves from the branches **fell** delicately, like feathers.

[COCA]

- c. Her hair **fell** to the ground beneath us. [인터넷다음영어사전]
- d. Hongkong protest: student who **fell** from parking lot during demonstration dies. [The Guardian: 2019.11.8.]
- e. Be careful when you go up in the trees, so that you don't **fall**.
[인터넷다음영어사전]

(14)의 예문에서 *apple*, *leaves*, *hair*의 움직임은 물리적 추락이다. *apple*, *leaves*, *hair*의 출발점은 원래 그들이 속한 그룹이며 각각 그들의 소속으로부터 분리된 후 각 개체(원래 소속되었던 그룹으로부터 이탈한 사과, 나뭇잎, 머리카락 개체들)가 추락한 것이다. 사과와 나뭇잎의 원래 위치는 나뭇가지였으나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아랫방향으로 추락했다. 예문 (14c)에서 머리카락의 원래 위치는 머리의 두피였으나 지지력의 상실 또는 부재로 인하여 두피로부터 분리된 후 머리카락이 추락한 것이다. 예문 (14d-e)의 경우는 물체가 아닌 사람의 물리적 추락이다. 탄도체는 사람이며 의도하지 않는 추락이다. 사람의 추락에도 지지력의 상실과 그로 인한 분리가 전제된다. 나무에 올라가던 사람이 나무를 붙잡고 있던 손, 발, 팔 등이 나무와의 지지력을 상실할 때 추락이 일어난다. 사람이 나무로부터 분리된 후 이탈이 일어나고 결국 추락하게 된다. Langacker가 “동사 *fall*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동하는 과정이 모습으로 드러난다. *fall*은 복합 시간적 관계(complex temporal relation)이다.” (Langacker 1987, 1991)라고 했듯이 *fall*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지력의 부족이나 상실’로 인한 ‘분리’ ‘이탈’ ‘추락’의 과정을 겪는다.

*fall*에 나타난 물리적 ‘추락’ 의미가 ‘떨어지다’에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문 (15)는 ‘추락’의 의미로 쓰인 한국어 ‘떨어지다’의 예문이다.

- (15) a. 굵은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어.
- b. 선반에 있던 책이 방바닥으로 **떨어졌어**.
- c. 폭포수가 절벽 위에서 시원하게 **떨어져** 강물을 이룬다.[한국어영어학습사전]
- d. 자다가 어째 잠자리가 불편해서 깨어보니, 난 바닥에 **떨어져** 있고 작자는 내 침대를 차지하고 세상모르고 자고 있잖아. (박완서, 도시의 흥년)

e. 그는 발을 헛디뎠다 구덩이로 **떨어졌다**. (네이버국어사전)

예문 (15a-c)는 빗방울이나 책, 폭포수 등의 물리적 추락이다. 예문 (15d-e)에 나타난 ‘떨어지다’의 의미는 사람의 물리적 추락이다. 원형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다음 (16)의 예문은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의 모습이나 들판이 경사져있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을 *fall*의 물리적 추락의 모습으로 주관화¹²⁾한 경우이다.

- (16) a. Her hair **falls** over her shoulders. [인터넛다음영어사전]
 b. The field **falls** gently to the river. [COCA]
 c. As the sun **fell** below the horizon and the first stars came out, he remembered. [COCA]

예문 (16a)에서 머리카락이 어깨로 늘어져 있는 시각적 모습을 물리적 추락으로 인식한 경우이며, 예문 (16b)는 들판이 강을 향해 완만하게 경사진 모습을 나타낸다. 객관적 추락이 아닌 주관화에 의한 주관적 추락이다. 들판이 실제 추락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관점에서 들판의 모습을 추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식한 것이다. 예문 (16c)는 해가 지는 모습을 주관화하여 추락의 모습으로 파악했다.

다음 ‘떨어지다’의 예문에서도 *fall*에서와 같이 주관화에 의한 ‘추락’의미가 발견된다.

- (17) a. 해**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한다.
 b. 외갓집을 나섰을 때는 저녁밥을 먹고 난 뒤 들녘 끝 먼 서산으로 붉

12) 주관화는 말하는 주체인 언어사용자가 언어를 표현하는데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다. 지각, 인지하는 발화 행위자에 대한 구현 또는 표현으로서의 언어를 다룬다. Langacker(1999: 150)에서는 주관화란 장면해석(construal)의 하위유형으로 ‘어떤 개체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해석으로부터 더 주관적인 해석으로의 전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동일한 상황을 구조화하고 해석하는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인 장면 해석의 한 차원이다. 언어는 주어진 실체를 객관적으로 표현한다기 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개념화하는 방식을 반영한다. (김동환, 2001, 주관화와 의미확장, *Studies in Modern Grammar*23, 127-148 재인용)

은 해가 막 **떨어졌을** 때였다. (김원일, 노을)

(17a) 예문에서 태양이 지는 것을 해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해를 움직이는 물체로 본 것이다. 하늘에 있던 해가 추락하여 밤이 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주관화한 경우다. 태양의 출발점 위치는 하늘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양이 원위치에서 벗어나 아래로 떨어져서 밤이 된다고 본 것이다.

3.1.2 하락의 의미

추락의 의미에서 확장된 *fall*의 또 다른 의미로서 ‘하락’의 의미를 반영한 예문을 살펴보자. 다음 예문들은 온도의 변화를 *fall*을 사용해 표현한 경우다.

- (18) a. The temperature **fell** ten degrees.
- b. The breeze had picked up and the temperature was **falling** rapidly. [COCA]
- c. When a vehicle is not being used in cold weather, its engine temperature **falls**. [COCA]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느낌과 뜨거운 느낌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큰 숫자로 나타내고, 온도가 낮을수록 적은 숫자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섭씨 30도였던 온도가 섭씨 20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온도가 떨어졌다(**fell**)’라고 표현한다. *fall*은 3차원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위치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3차원의 공간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뜨겁고 차가운 느낌의 정도를 어떤 기준 온도와 비교하여 높은 곳(HOT=MORE)에서 낮은 곳(COLD=LESS)으로의 위치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각한다. 여기에 [많은은 위/적음은 아래](MORE IS UP, LESS IS DOWN) 은유가 작용했다. 느낌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고 그 수치에 수직 방향적 위치를 부여해준 것이다.

‘떨어지다’의 경우도 온도의 하락을 표현할 때 영어 *fall*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음 예문 (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9) a.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b. 해열제를 먹었더니 체온이 **떨어지네요**.

‘떨어지다’에서도 *fall*과 마찬가지로 뜨겁고 차가운 느낌의 정도를 높고 낮음의 수직 방향적 위치로 간주하여 온도가 하향 위치 이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 예문 (20)은 수치의 하락을 동사 *fall*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많은은 위/적음은 아래]은유에 의해 수치 ‘하락’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 (20) a. While Western Union remains the industry leader, their share of the market has **fallen** dramatically.
[G Ritzer · P Dean, 2014, Globalization: A Basic Text: 281]
b. Alcatel's stock price **fell** \$ 1.89 today, to \$ 30.15. [COCA]
c. The average 15-year mortgage has **fallen** to 7.24% from 8.87% in January. [COCA]

예문 (20a)에서의 *fall*은 수치로 표현되는 시장 점유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예문 (20b-c)에서도 주식의 가격이나 담보 대출의 평균치 등의 수치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fall*의 수치 ‘하락’의 의미는 ‘떨어지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다음 예문 (21)을 살펴보자.

- (21) a. 쌀값은 80kg당 평균 536원 **떨어졌는데**, 경기미는 1604원이나 낮아졌다.(농민신문 2017.6.12.)
b. 지난 2012년 하루 257명이던 신생아수는 줄곧 **떨어지다** 재작년 206명 이더니 다시 1년 만에 27명이나 더 준겁니다.(BBS News 2018.12.12.)

예문 (21a)의 경우 작년의 쌀값과 올해의 쌀값을 비교하여 작년에 비해 올해의 쌀값이 더 하락했음을 뜻한다. (21b)의 경우는 연도별 출생률의 하락을 의미한다. 쌀값과 출생률 등은 수치로 표현된다.

(18)-(21)의 예문에서 *fall*과 ‘떨어지다’는 수치의 ‘하락’을 의미하였으나 다음 (22)-(23)의 예문은 ‘하락’의 또 다른 의미로 탄도체의 이동이 물리적 공간에서 추상적 영역으로 전이되어 일어나는 위치 변화를 다루고 있다.

다음 (22a-b) 예문에서 *fall*은 가치의 하락이나 품위와 자부심의 하락, 신용 등급 등의 평가의 하락을 나타낸다. 탄도체들이 모두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공간영역 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개체로 간주된다.

- (22) a. The default option should be exercised immediately when the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falls*** below the value of the mortgage.
- b. Enhancing students' feeling of dignity and self worth ***fell*** in the middle of the distribution. [COCA]
- c.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withdraw banks whose international credit ratings continue to ***fall***. [COCA]

예문 (22a)에서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저당권의 가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표현한 것은 ‘가치’라는 추상적 대상을 움직이는 물체로 개념화한 것이다. (22b-c)에서 품위와 자부심, 신용등급 등의 추상적 대상 역시 동사 *fall*로써 그 움직임을 ‘하락’의 의미로 개념화시키는데 [가치는 움직이는 물체](VALUE IS A MOVING OBJECT)은유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 (23)에서는 *fall*이 추상적 대상을 구체물화 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락’의 의미가 ‘떨어지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 (23) a. 정부는 국제 신용 등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은행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국어사전]
- b. 갈수록 관객의 수준이 **떨어졌다**.
- c. 이제 김복실 여사는 인플레이션이 형편없이 **떨어져** 부피만 산더미

- 처럼 많은 한국 은행권은 돈 같지도 않았다. (박완서, 도시의 흥년)
- d. 지금은 비록 개화 시절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양반의 권세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기영, 봄)

예문 (23a-d)은 *fall*의 예문 (22)에서와 같이 가치나 품질, 값, 각종 평가, 수준, 권세 등의 추상적 개념을 물리적 공간에 위치시킬 수 있는 구체물로 보았다. 즉 탄도체인 추상적 개념이 하향 이동하여 ‘하락’의 의미를 나타낸다.

3.1.3 배당의 의미

다음 예문 (24)에서의 *fall*의 의미들은 탄도체의 이동 과정을 통해 파생된 배당, 배정, 할당의 의미들이다. ‘배당’의 의미로 사용된 *fall*의 예문을 살펴보자.

- (24) a. The inheritance **fell** to the only living relative. [네이버영어사전]
 b. Sir, nearly a year ago, the money from an inheritance **fell** to me.
 c. This task **fell** to me.

예문 (24a-b)에서의 의미는 *fall*의 이동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유산이 배당(또는 상속)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출발점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배당될지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친척에게로, 또는 나에게로 낙점되어 배당되었다. 예문 (24c)는 과제가 나에게로 배정된 것이다. 과거에 정해지지 않았다가 현재 정해져서 배당되거나 배정된 것을 의미하는 데, [미정은 위/결정은 아래](UNDECIDED IS UP DECIDED IS DOWN)은유가 작용하여 확장된 ‘배당’의 의미이다.

*fall*이 [미정은 위/결정은 아래]은유에 의해 배당, 배정, 할당의 의미로 확장된 것과 같이 ‘떨어지다’에서도 같은 양상이 발견된다. 다음 예문 (25)를 살펴보자.

- (25) a. 그거 팔아봐야 나한테 겨우 500원 **떨어지는데**...[네이버국어사전]

- b. 회사 과장인 그는 아내와 함께 카페도 운영하여 **떨어지는** 수입이 만만찮다.[네이버국어사전]
- c. 결국 그 건물들 전부 막내딸한테 **떨어졌다**고 해.
- d. 너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떨어질** 테니 기다려라.
- e. 우리 부서에 **떨어진** 과제는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위 예문에서 이익이나 수입 또는 소유권 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이익이나 권리가 배당된다는 것이다. ‘떨어지다’가 배당, 할당의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fal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아래(UP-DOWN) 은유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건을 팔거나 카페 운영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생긴 이익이 정해져 배당되는 것은 [미정은 위/결정은 아래]은유를 통해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25c) 예문은 소유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익 배당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25d-e)의 예문은 임무나 과제의 할당을 의미하는 경우들이다. (25d-e)에서도 *fall*의 경우와 같이 탄도체는 임무, 과제이며 지표는 사람, 부서이다.

3.1.4 상태나 상황으로의 추락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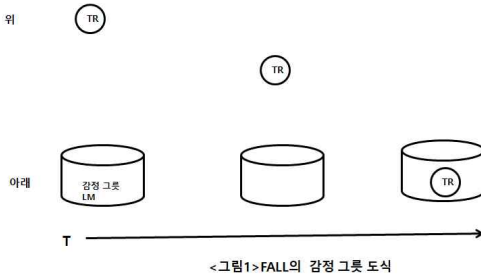
물리적 추락을 의미하던 *fall*은 정신적, 감정적 상태나 상황에서도 ‘추락’ 의미로 은유적으로 확장된다. 또한 *fall*은 이동자(탄도체)가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로 진행 될 때도 쓰이는 데,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 (26) a. I **fell** in love with the guy the minute I realized. [네이버영어사전]
- b. We can see that he would **fall** into profound grief if he knew that George had been killed. [다음인터넷영어사전]

*fall*의 원형 의미가 ‘지지력의 상실 또는 부재로 인한 아랫방향으로의 추락’인데 사랑을 느끼는 감정적 상태, 깊은 슬픔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에 ‘떨어지다’라는 의미의 *fall*을 사용하는 데는 그릇 영상도식과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거나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통제력의 상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랑, 슬픔과 같은 추상적인 감정의 상태를 그릇이라고 은유적으로 개념화하고, 그 그릇 속으로 위치 이동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fall*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의 하향 이동이라는 점을 견지할 때 그릇으로 떨어졌다고 개념화한 것은 그릇 밖에 있는 상태를 높은 위치로 보고, 그릇 안에 있게 된 상태를 낮은 위치로 간주한 것이다. 다음 <그림1>은 지표(LM)로 표상되는 그릇 속에 탄도체(TR)가 빠지게 되는 추락의 상황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릇 도식에서 그릇 안으로 들어가게 된 상태를 좀 더 부정적 의미로 본 이유는 그릇 속은 폐쇄적이고 구속적인 경험에 해당되고, 그릇 밖으로 빠져 나오는 것은 개방적이고 해방적인 경험이다. 그러므로 ‘그릇 밖’은 긍정적 의미의 ‘위’이고 ‘그릇 안’은 부정적 의미의 ‘아래’이다.

또한 사랑의 감정, 슬픔의 감정으로 떨어지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fall*의 원형 의미와 비교해 볼 때, 물리적 상황에서의 지지력은 인간의 감정적 상태에서의 통제력과 같다. 사랑이나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은 감정의 그릇 안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부정적 상황으로의 추락이다. 이러한 개념화를 가능하게 한 은유는 [통제하거나 힘을 갖는 것은 위/통제나 힘에 복종하는 것은 아래](HAVING CONTROL IS UP; BEING SUBJECT TO CONTROL IS DOWN)이다. *fall*은 사랑이나 슬픔 속으로 빠지는 인간의 정서와 의식의 위치 이동 과정이다. 그러므로 하향 이동 과정에 중점을 둔 위-아래 도식이 *fall*의 의미를 복돋우지만 한국어에서는 위치 이동 과정으로서의 ‘떨어지다’가 아닌 ‘빠지다’라고 표현하여 탄도체가 지표인 감정 그릇 속에 들어간 상태에 좀 더 주목하

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지표가 사랑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적 상태일 경우에는 위-아래 도식보다는 그릇 도식이 주로 활용된다.

다음 예문 (27)은 *fall*이 깊은 잠에 빠진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로의 ‘추락’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 (27) a. I watch your eyelashes flutter as you **fall** into REM sleep. [COCA]
 b. But warm water will help you relax and **fall** asleep easily.[COCA]
 c. The boy injured his head and **fell** unconscious, making him incredibly vulnerable. [COCA]
 d. If her blood sugar levels change, she can **fall** into a coma.[COCA]

수면 상태나 혼수상태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경우도 부정적 가치를 갖는 그릇으로의 추락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의식은 위/무의식은 아래](CONSCIOUS IS UP; UNCONSCIOUS IS DOWN)은유의 작용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의 상태로의 진행에 *fall*이 사용된다.

‘떨어지다’에서도 이러한 의식 상태의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fall*과 같은 양상이 발견된다. 다음 예문 (28)을 살펴보자.

- (28) a. 친구의 힘든 사정을 듣고 나니 점점 무거운 기분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b. 아이가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깊은 잠에 **떨어졌다**.
 c. 잘되던 사업이 망해 가더니 결국 지금과 같은 가난뱅이로 **떨어졌죠**.
 d.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28 a-d 예문, [네이버국어사전])

예문 (28a)에서는 탄도체(기분)가 ‘무거움’이라는 부정적 ‘감정그릇’으로 추락한 것이다. 예문 (28b)는 아이가 깊이 잠든 것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추락한 것이다. [의식은 위/무의식은 아래]은유를 통해 확장된 의미이다. (28c) 예문에서는 잘되던 사업이 망해서 지금은 가난해졌다는 의미인데 [좋은 것은 위/나쁜 것은 아래]은유로 인해 ‘가난뱅이’처지로 추락을 의미한다. 예문

(28d)에서의 ‘타락의 길’로의 ‘추락’의미도 [미덕은 위/타락은 아래]은유를 통해 가능해진 표현이다. 위의 용례에서 ‘떨어지다’는 ‘어떤 상태나 처지에 빠지다’라는 의미로 ‘타락의 길, 가난뱅이, 무거운 기분’ 등과 같은 상태는 의도하거나 염원하는 긍정적 위치가 아니다. 부정적 그릇 도식으로서의 ‘추락’의 의미이다. 여기서도 ‘위-아래’ 은유의 작용이 발견된다.

예문(26)-(28)을 통해 의식이나 감정적 상태로의 ‘추락’의미로 쓰인 *fall*과 ‘떨어지다’의 확장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fall*과 ‘떨어지다’의 예문을 살펴보자.

(29) a. How many *fell* during the second world war? [네이버영어사전]

b. We fought there and martyrs *fell*. Whom were we defending?

[다음인터넷영어사전]

(29)예문은 *fall*이 죽음의 의미로 쓰인 경우인데 ‘위-아래’은유가 중첩되어 그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직립하지 못하고 누워있게 된다. 죽음에 이르면 영원히 누워있게 된다. 질병이나 죽음은 물리적으로 아래쪽에 훨씬 가깝다. 죽음에 이른 상태는 출발점은 살아있는 상태이며 의식이 있는 상태이고, 도착점은 죽음 상태이며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죽음으로의 떨어짐이다. 따라서 [과거는 위], [삶은 위], [의식은 위], [상태는 위치] 은유, [현재는 아래], [죽음은 아래], [무의식은 아래] 은유를 통해 의미가 확장되었다. 수많은 ‘위-아래’ 은유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죽음 상태로의 추락을 의미하는 *fall*과 동일한 은유적 확장을 겪은 ‘떨어지다’의 예문이다.

(30) a. 영화계의 큰 별이 **떨어지다**.

b. 반야월 별세-가요계의 큰 별이 **떨어지다**.

예문 (30a-b)의 경우 큰 업적을 가진 인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예문으로서

삶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의 하향 이동을 [삶은 위/죽음은 아래]은유를 통해 ‘떨어지다’로 나타내었다.

3.2 *fall*에서만 발견되는 의미

같은 원형 의미를 갖고 있는 *fall*과 ‘떨어지다’는 일부 확장 의미에서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된다. 먼저 영어의 *fall*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의미인 ‘감소’와 ‘속(屬)’의 의미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3.2.1 감소의 의미

다음 예문들에서 *fall*은 감소를 의미한다.

- (31) a. German industrial orders **fell** unexpectedly in October.
[REUTERS Business News;2019.12.5.]
- b. Jupito's voice **fell** from the top. [COCA]
- c. Her voice **fell** and she looked about in confusion. [COCA]
- d. The wind **fell** and the hawthorn stilled. [COCA]
- e. There was a pause during which the wind **fell** off, and then a voice said, “ I do.” [COCA]

예문 (31a)의 경우 독일의 산업 주문이 줄어든 것으로 주문을 양(量)화하여 ‘감소’의 의미로 쓰인 용례이다. 예문 (31b-e)는 목소리, 바람 등이 *fall*과 함께 쓰여, 크기나 세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소리의 크기는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양(quantity)이다. 소리의 크기는 객관적 수치로 양화된다. 그래서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은 소리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며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은 풍속의 수치가 줄어드는 것으로서 ‘감소’의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은유는 [많은은 위/적음은 아래](MORE IS UP, LESS IS DOWN)이다.

3.2.2 속(屬)의 의미

다음 예문에서의 ‘*fall*’은 가능성 있는 둘 이상의 경우 중 하나의 경우에 속하여 해당 되는 것을 의미한다.

- (32) a. Christmas *falls* on a Monday this year. [다음인터넷영어사전]
 b. My birthday will *fall* on a Friday this year. [COCA]
 c. The accent *falls* on the last syllable. [COCA]

예문 (32a-b)에서 *fall*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크리스마스, 내 생일 등 매년 있는 특별한 날들은 7개의 요일 중 하나가 되고 그것은 누군가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나의 요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문 (32c)는 단어의 강세가 여러 개의 음절 중 하나의 음절에 오는 것이다. 그것 역시 무의지적 소속이다. ‘속(屬)’의 의미에는 우연성, 비의도성의 의미자질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속(屬)’의 의미에서의 탄도체는 행위자가 아닌 무의지의 이동자이다.

3.3 ‘떨어지다’에서만 발견되는 의미

한국어의 ‘떨어지다’는 영어의 *fall*과 비교할 때 떨어짐의 과정 뿐 만 아니라 떨어짐의 시점과 종점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영어에 없는 몇 가지 의미들은 시점과 종점의 환유적 부각에 의해 확장되었다. 그것은 영상도식의 어떤 한 부분을 부각하는 관점화 과정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시점을 관점화함으로써 ‘분리’와 ‘소멸’의 의미가 발생하였고, 종점을 관점화함으로써 ‘소진’과 ‘도착’의 의미가 발생하였다. *fall*에 없는 ‘분리’, ‘소멸’, ‘소진’, ‘도착’의 의미

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3.3.1 분리의 의미

‘떨어지다’의 영상도식을 살펴볼 때 그 시점은 탄도체의 출발점으로서 탄도체가 지표로부터 분리된 순간이다. 영상도식의 시점과 관련된 ‘분리’를 의미하는 ‘떨어지다’의 예문을 살펴보자.

- (33) a. 블라우스의 단추가 하나 **떨어져** 봤더니, 단추 구멍의 실이 풀어져 있었다.
 b.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진** 건 못이 문제인거야.

(33a) 예문에서 블라우스의 단추는 블라우스에 잘 붙어 있다가 단추 구멍의 실이 풀어짐으로 인해 블라우스와 단추의 지지력이 상실되어 결국 단추가 블라우스로부터 분리되어 이탈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표는 블라우스이고 탄도체는 단추임을 알 수 있다. (33b) 예문의 경우 지표인 벽으로부터 탄도체인 액자가 분리되어 추락하였다.

다음 예문 (34)에서도 ‘분리’의 의미가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34)의 경우는 예문 (33)과는 달리 탄도체와 지표가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 (34) a. 그 아이는 다 **떨어진** 가방을 일 년 내내 들고 다녔다.
 b. **떨어진** 소매 단을 기우고 기워서 다시 입었다.

(34a)예문에서의 떨어진 가방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추락한 가방이 아니다. 그것은 낡아서 헤어진 가방을 뜻한다. 낡고 헤어진 가방을 다 떨어진 가방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원래의 가방은 원단의 섬유가 한 올 한 올 잘 엮여있는 상태이다. 그것은 섬유와 섬유가 서로 지지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마찰이나 잦은 사용 등)로 섬유의 올과 올이 서로 지지력이 상실되면 분리가 뒤따른다. 경우에

지표와 탄도체의 분리로 인해 생긴 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부각시키면 ‘떨어지다’는 ‘물리적 거리’가 되고 그것은 다시 은유적으로 ‘추상적 거리’의 의미로 확장된다.

다음 예문 (36)은 분리로 인한 ‘물리적 거리’가 ‘추상적 거리’로 의미 전이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지지력의 상실이 물리적인 대상에서 뿐 만 아니라 추상적 대상에게서도 나타나며 그것은 ‘분리’와 ‘거리’의 의미를 발생시킨다.

(36) a. 온갖 아부를 떨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b. 그 애는 아직도 안 **떨어지고** 진수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예문 (36)의 ‘떨어지다’는 관계의 분리를 의미한다. 예문 (36a)는 아부를 떨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분리되어 헤어짐을 뜻한다. 예문 (36b)에서 그 애는 진수와 사귀고 있는 관계이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탄도체와 지표의 지지력에 대응된다. 지지력이 상실될 때 두 사람의 관계에 분리가 일어난다. 물리적 분리는 은유적으로 애정 관계의 분리, 즉 헤어짐이다. 관계 분리(헤어짐)로 인해 생긴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떨어지다’로 표현된다. [친밀도는 물리적 거리](INTIMACY IS CLOSENESS)은유가 추상적 ‘분리’의 의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음은 분리로 인한 탈락을 의미하는 ‘떨어지다’의 예문이다.

(37) a. 그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b. 이번 수능에 **떨어지면** 재수할거야.

c.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1등도 **떨어지다**.(시사IN 2019.10.23.)

예문 (37a)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를 일컫는다. 투표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국회의원 당선과 낙선으로 나뉘게 되는데 낙선(落選)을 ‘떨어지다’로 표현한 것은 당선 영역에서 벗어나 있음이 부각된 것이다. 당선 영역과 생긴 거리를 의미한다. 예문 (37b)의 경우에서

도 학생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른 후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불합격한 경우 ‘떨어졌다’라고 표현한다. 이 경우도 불합격은 소속하고자 하는 영역(합격의 영역)과의 거리가 분명하게 생김을 의미한다. 또한 위-아래 도식도 발견되는데 당선의 영역, 합격의 영역은 속하고자 하는 영역으로서 긍정적 가치를 갖는 ‘위’이고 불합격과 낙선의 영역은 부정적 가치를 갖는 ‘아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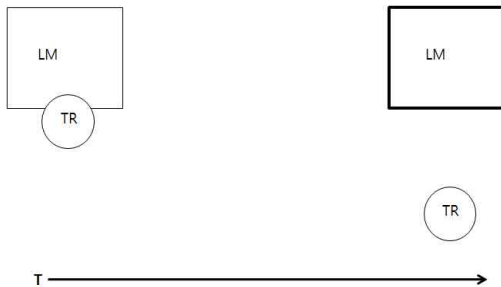
3.3.2 소멸의 의미

다음 예문에서도 ‘분리’의 의미가 발견되며 추상적 대상에게서 분리의 결과가 환유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소멸’의 의미로 전이된 경우이다.

- (38) a. 입덧이 너무 심해서 만의 하나 애 **떨어질까** 걱정스럽다.
- b. 임신 초기엔 아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네이버국어사전]

(38)예문의 경우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임신이 잘 유지되어야 출산이 이루어 지는데 입덧 때문에 아기가 자궁과의 지지력이 부족해지면 자궁으로부터 분리되고 분리된 결과는 유산이다. 이 예문의 경우 분리의 결과는 소멸로서 유산의 의미를 ‘떨어지다’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 <그림3>은 ‘소멸’을 겪은 지표를 관점화한 영상도식이다.



<그림3>분리로부터 생긴 소멸의 관점화

<그림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출발점 위치에서는 지표(LM)와 탄도체(TR)가 서로 접하여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탄도체가 지표로부터 분리되어 추락하는 영상도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탄도체의 추락의 과정은 무시되고 탄도체가 없어진 후 남겨진 지표가 굵은 선으로 표시되었다. 그것은 탄도체가 소멸된 상태의 지표에 초점을 부여하여 부각한 것으로 지표는 탄도체의 소멸을 겪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환유적 관점화로 ‘떨어지다’는 ‘소멸’의 의미를 갖게 된다.

- (39) a. 약을 먹었는데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b. 그 농 하는 짓을 보면 오만 정이 다 **떨어져**.
 c. 이 집 냉면을 먹으니 **떨어진** 입맛이 돌아온 듯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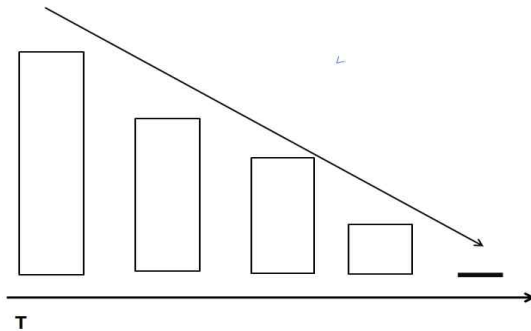
예문 (39)에서 감기나 정, 입맛 등을 하나의 움직이는 물체로 간주함으로써 다양한 의미 변화가 가능해진다. (39a)의 경우 지표는 화자의 몸이며 탄도체는 감기이다. 지표와 탄도체의 지지력은 화자의 몸에 붙어 있는 감기의 힘으로 은유적으로 사상된다. 감기가 떨어지는 것은 약을 복용함으로써 감기의 힘이 약해져 화자에게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감기가 소멸된 화자의 몸에 관점화가 이루어져 ‘떨어지다’는 ‘소멸’의 의미가 된다. 예문 (39b)는 정이 화자의 마음에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고 예문 (39c)는 입맛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떨어지다’는 환유적 관점화에 의해 분리 후 ‘소멸’의 의미가 생긴다.

3.3.3 소진의 의미

다음 예문은 ‘떨어지다’가 ‘소진’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감소의 진행과정에서 종점은 ‘소진(消盡)’ 또는 ‘무(無)’의 상태이다. 종점의 부각은 관점화된 ‘소진’상태이다.

- (40) a. 용돈이 **떨어져서** 선물을 못 샀어요.
 b. 쌀과 생수가 **떨어져** 간다.
 c. 고기 **떨어지는** 날이 없으니 얼굴도 달덩이처럼 흰했다.
 (농민신문 기획연재 2014.11.3.)

(40a-c)의 예문에서 용돈, 쌀과 생수, 고기는 잔량(殘量)이 소진(消盡)되고 있는 상황을 ‘떨어지다’로 표현한 것이다. 감소의 진행의 마지막 종점은 소진이다. 감소로 인해 생긴 소진의 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4>와 같다.



<그림4>감소로 인한 소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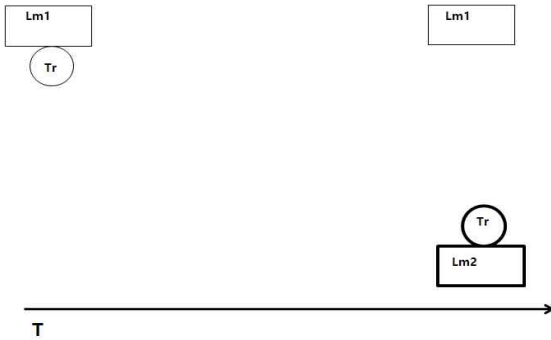
여기에서 [많은은 위/적음은 아래] 은유와 무(無)의 상태가 된 도착점의 환유적 부각이 작용함으로써 ‘떨어지다’는 ‘소진’의 의미를 갖는다.

3.3.4 도착의 의미

다음 예문은 ‘떨어지다’가 ‘어떤 장소에 내리거나 도착하다’의 의미가 된 경우이다. ‘도착’의 의미로 확장된 ‘떨어지다’의 예문을 살펴보자.

- (41) a. 이 열차는 밤 열 시에 부산역에 **떨어지는** 열차이다.
 b. 목적지에 제시간에 **떨어지려면** 지금 집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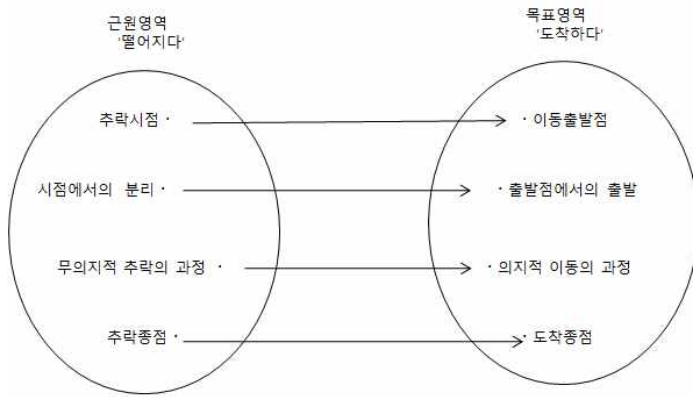
‘도착하다’의 의미로의 확장은 은유적 개념화와 환유적 관점화를 통해 실현되었다. 예문 (41)에서 탄도체는 지금까지의 ‘떨어지다’의 확장 의미들과 달리 두 개의 지표를 갖는다. ‘도착’의미로서 ‘떨어지다’의 시간상의 이동을 기술할 때는 탄도체의 시점과 종점을 확인해야 한다. ‘추락’, ‘하락’, ‘분리’, ‘소멸’ 등의 확장 의미들에서 최종 위치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추락의 종점은 무시되고 추락의 시점과 추락의 과정만을 영상도식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도착’의 의미에서는 추락의 최종 위치에 주목한다. 시간상의 이동에서 최종 위치는 탄도체가 맞닿아 있는 두 번째 지표이다. <그림5>를 참고하자.



<그림5>도착의미의 관점화

예문 (41a)에서 열차(탄도체)는 출발역(첫 번째 지표)에서 출발하여 이동하다가 밤 열시에 부산역(두 번째 지표)에 도착한다. ‘떨어지다’가 ‘도착하다’의 의미를 갖게 되는 데에는 두 번째 지표(종점)와 탄도체가 맞닿아 있는 상태를 관점화하여 부각했기 때문이다. <그림6>은 ‘도착’의미의 영상도식으로서 탄도체와 그것이 맞닿아 있는 두 번째 지표를 굵은 선으로 나타냄으로써 관점화됨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형 의미로서의 ‘떨어지다’가 갖고 있던 ‘무의지’나 ‘의도하지 않음’의 의미자질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지적 이동’이 발견됨을 알 수 있다. 도착은 우연의 결과가 아닌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출발하여 이동한 결과이다. 다른 의미들에서와 달리 ‘도착’의 의미에서 탄도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동자로서 행위자라고도 볼 수 있다. ‘추락’의미와 ‘도착’의미가 어떻게 연관성을 갖게 되었는지는 <그

림6>을 참고하기로 한다.



<그림6>떨어짐은 도착에 대한 은유적 사상

다음 예문에서는 물리적 거리 영역에서의 ‘도착’의 의미가 추상적 영역으로 전이된 경우로서 말이나 명령과 함께 쓰여 ‘하달’(下達)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 (42) a. 허락한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 b. 우리 중대장님의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

예문 (42a-b)는 ‘허락’, ‘출동 명령’이 ‘떨어지다’와 함께 쓰인 경우이다. 움직이는 물체로 간주된 명령이나 허락의 ‘말’이 상급자에게서 하급자로 하달되는 것이다. 하달의 의미에는 필연적으로 허락하는 사람과 허락을 구하는 사람과의 위계관계가 존재한다. 허락을 구하는 사람은 허락하는 사람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제를 하거나 힘을 갖는 것은 위/통제나 힘에 복종하는 것은 아래](HAVING CONTROL IS UP, BEING SUBJECT TO CONTROL IS DOWN)은유가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요컨대 ‘도착’의 의미가 ‘하달’의 의미로 은유적 확장을 겪은 것으로 탄도체는 위(상급자)에서 아래(하급자)로 도착하는 ‘말과 명령’이다.

IV. 영어 *fall*과 한국어 ‘떨어지다’의 의미 비교

영어 *fall*과 한국어 ‘떨어지다’의 원형 의미를 설정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의미 자질에 따라 몇 가지 의미군으로 나누어 인지의미론적 방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두 언어권의 대응 어휘의 확장 양상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4.1 *fall*과 ‘떨어지다’의 공통점

영어 *fall*과 한국어 ‘떨어지다’는 개념적으로 그 원형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의미 확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들이 있다.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수직 하향 이동’이라는 원형 의미는 서로 일치되는 의미이다. 물리적 ‘추락’의 의미와 ‘하락’의 의미, ‘배당’의 의미, ‘상태나 상황으로의 추락’의 의미가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3) a. Raindrops *fell*.
 b. 빗방울이 떨어졌다.
 c. The temperature has *fallen* by more than ten degrees.
 d.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다.
 e. The money from an inheritance *fell* to me.
 f.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이 나에게로 떨어졌다.
 g. He *fell* asleep as soon as he lay down.
 h. 그는 눕자마자 잠에 떨어졌다.

예문 (43a-b)는 빗방울의 물리적 추락이다. 예문 (43c-d)는 기온의 ‘하락’이다. 예문 (43e-f)는 유산이 나에게 떨어진 것으로 ‘배당’의 의미이다. 예문 (43g-h)는 수면 상태로의 ‘추락’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두 어휘의 확장 과정에 공통적으로 ‘위-아래’ 지향적 은유와 그릇도

식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온도나 가격, 가치, 품위, 자부심 등의 추상적 대상을 은유적으로 구체물화 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었다.

4.2 *fall*과 ‘떨어지다’의 차이점

차이점과 관련하여 영어에서 특별하게 발견된 다른 의미는 ‘속(屬)’의 의미와 ‘감소’의 의미가 있다. ‘속(屬)’의 의미는 하나의 개체가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포함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우연성에 의한 ‘속(屬)’의 의미로서 영어의 *fall*에서만 발견된다. 또한 목소리의 크기와 바람의 세기를 양화하여 그 수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간주한 ‘감소’의 의미는 추상적 대상을 양(量)으로 개념화한 후 그 양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정도 *fall*만의 특징이다.

또한 *fall*은 수직하향 위치 이동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동 과정에 주목하여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fall*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그 하향이동이 우연한 것이며 의도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한 상속의 의미, 우연한 ‘속’의 의미가 발생한다.

한편 ‘떨어지다’만 갖게 된 특별한 의미는 ‘분리’, ‘소멸’, ‘소진’, ‘도착’의 의미이다. 그것은 ‘떨어지다’의 전체적 영상 도식에서 ‘추락’의 과정뿐 만 아니라 시점과 종점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fall*에 없는 의미가 발견된다. 지표와 탄도체의 분리가 일어난 순간인 시점의 부각은 ‘분리’의 의미를 파생시키고, 분리 후 탄도체가 소멸된 지표를 부각함으로써 ‘소멸’의 의미가 생긴다. ‘정 떨어지다’, ‘강기가 떨어지다’ 등과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또한 탄도체 이동의 종점을 부각한 ‘도착하다’의 의미는 ‘해 안에 떨어지려면 지금 출발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떨어지다’는 은유 뿐 만 아니라 환유에 의한 확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위치 이동 방향성과 관련하여 ‘떨어지다’는 수직성 뿐 만 아니라 수평적 거리감을 강조한 의미도 발견된다. 또한 ‘떨어지다’는 우연성에 기인한 위치 변화 뿐 만 아니라 ‘도착’의미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의도적 이동’의 의미 자질도 발견된다. 다음은 두 어휘의 의미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영어 *fall*과 한국어 ‘떨어지다’의 의미 비교

구분		영어	한국어
공통점	의미군	원형 의미: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지다’ ‘물리적 추락’, ‘하락’, ‘배당’, ‘상태/상황으로의 추락’ 의미	
	인지기제	추상적 개념(온도, 가격, 가치, 품위, 자부심 등)의 구체물화 지향적 은유의 작용 영상도식 (위-아래 도식과 그릇 도식)의 개념화	
차이점	의미군	속(屬)의 의미 ‘감소’의 의미: 추상적 대상 (목소리, 바람)의 양화 표현	‘소진’의 의미 ‘분리’의 의미 ‘소멸’의 의미 ‘도착’의 의미
	의미자질	수직적 위치 이동에 국한됨 우연성과 무의지에 의해 위치가 변화됨	수직적 거리가 수평적 거리로 확장됨 우연성과 무의지뿐 아니라 의도적 이동이 다수 발견됨
	인지기제	떨어짐의 과정 ¹³⁾ 에 주목함 은유적 확장이 주를 이룸	떨어지는 과정, 시점, 종점 등을 부각하는 환유적 확장이 다수 발견됨

V. 결론

지금까지 *fall*과 ‘떨어지다’의 다양한 의미들을 찾아보고 그 중심이 되는 원형 의미를 설정한 후 확장된 다양한 의미들을 원형 의미와 관련지어 그들의 확장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도구로는 인지의미론의 중심 기제인 은유와 환유의 방법론과 영상도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fall*과 ‘떨어지다’는 원형 의미를 서로 공유한다. 또한 은유적으로 확

13) 인지문법에서의 ‘과정’은 동사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탄도체와 지표로 지칭된 개체들이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을 통해 변화되는 관계술을 지칭한다(Langacker 1987: 244).

장된 ‘추락’의 의미와 ‘하락’의 의미, ‘배당’의 의미, ‘상태나 상황으로의 추락’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

둘째, 두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지 기제는 ‘위-아래’ 도식이다. *fall*과 ‘떨어지다’는 ‘위-아래’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사용하여 많은 의미를 파생시키고 있다. 주로 ‘아래’라는 공간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추락’, ‘하락’, ‘감소’, ‘배당’, ‘속(屬)’, ‘상태나 상황으로의 추락’ 의미들이 파생되었다.

셋째, 추상적 대상이나 상태에 구체물의 지위를 부여한 점이 공통적이다. 예를 들어 온도, 가격/가치, 품위, 자부심 등의 추상적 개념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물로 개념화함으로써 파생된 의미들이 많다. 여기에 ‘위/아래’ 은유가 만나 *fall*과 ‘떨어지다’의 다양한 의미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두 대응어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토대 위에서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언어 군에 따라 다른 의미적 확장을 갖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음 몇 가지 의미 군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떨어지다’에서는 *fall*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분리’의 의미, ‘도착’의 의미, ‘소멸’의 의미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들은 영상도식의 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여 부각시킨 결과이므로 관점화(perspectivization)를 통해 확장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떨어지다’와는 달리 *fall*에는 ‘바람이 약해지다’ 또는 ‘목소리가 줄어들다’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는 ‘크기나 세기의 감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fall*의 속(屬)의 의미도 한국어의 ‘떨어지다’에 없는 의미이다. 가능성 있는 여러 경우 중 우연히 하나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미정은 위/결정은 아래 은유가 만든 의미이다.

셋째, *fall*은 그 하향이동에 의지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과정이나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우연성에 의한 위치 이동은 *fall*의 의미 확장에 중요한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떨어지다’는 탄도체의 이동에 있어 의지나 의도의 유무는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떨어지다’는 영어와 같이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영어와는 달리 의도적일 수도 있다. ‘떨어지다’의 의도성이 확장되면 ‘정오 안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의 예시에서와 같이 '도착'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넷째, 한국어의 '떨어지다'의 의미 중 영어의 *fall*과 구별되는 다른 의미는 '추락' 의미에서 발견된 불합격과 탈락의 의미, '분리'로부터 발생한 '거리'의 미, '분리'로부터 확장된 '소멸'의미, 관점화로 인해 파생된 '도착'의미로 요약된다. 한국어에서는 위/아래 은유보다는 관점화에 의한 환유적 확장을 겪는 의미들이 많이 있어 수직 이동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분리'로부터 발생한 '거리'개념은 수직거리가 아닌 수평거리에 가깝다. '분리'로부터 발생한 '소멸' 개념, 출발점과 도착점 중 도착점을 강조함으로써 획득된 '도착'의 개념 등은 관점화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의 *fall*과 한국어의 '떨어지다'의 다양한 의미를 인지미론의 방법론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두 대응어가 갖는 의미들의 확장근거를 살펴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영어 *fall*과 한국어 대응어인 '떨어지다'와의 의미론적 비교 분석은 영어학습자 또는 한국어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연구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나 구절동사, 속담이나 속어에 나타나는 *fall*과 '떨어지다'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동환. 2001. 주관화와 의미 확장. 현대문법학회, 23, 127-148.
- 김선정. 2010. 언어의 보편성과 유효성을 통한 한국어 교육. 동서인문학, 43, 65-90.
- 김명숙. 2003. 의미 확장 현상의 개념화 과정-동사 'take'의 의미 분석. 담화와인지, 10, 27-47.
- 김지애·최영주. 2013. Comparison of English KILL and Korean CWUKITA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emantics. 영어영문학21,

26,319-338

- 나익주. 2012. 다의어 'walk'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담화와인지, 19, 55-79.
- 이종열. 2001. 환유와 은유의 인지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19, 169-190.
- 이종열. 2007. 개념적 환유 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어교육연구, 40, 253-272.
- 임지룡. 1993. 의미범주의 원형탐색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15-152.
- 임지룡. 1995. 환유의 인지적 의미특성. 국어교육연구, 27, 223-254.
- 임지룡. 2006. 감정의 인지작용 양상. 국어교육연구, 39, 131-164.
- 임지룡. 2006.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20, 29-60.
- 임지룡. 2007. 인지의미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21, 51-87.
- 임지룡. 2008. 인지언어학의 성격과 설명력. 담화인지언어학회, 30, 15-36.
- 임지룡. 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의미학, 28, 193-226.
- 임지룡. 2010. 감정의 그릇 영상 도식적 양상과 의미특성. 국어학회, 49, 31-7.
- 양용준. 2014. 영어와 한국어의 직시(Deixis)현상에 대한 이해와 비교 분석. 영어영문학연구, 56, 309-336.
- 최영주. 2013. The potentiality for actuality metonymy in English and Korean. 영어영문학21, 407-429.
- 최영주. 2017. Comparison of the Concept EAT as a Metaphorical Source in Korean and English, 22, 285-306.
- 최영주 · 김의산 · 정선주 · 김혜민. 2018. '생명'과 관련된 신체관용구-영어와 한국어의 '머리'와 '목' 관련 관용구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31, 79-98.
- Deignan, A. 2005. *Metaphor and Corpus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 Evans, V. & M. Green.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London an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vans, V. & J. Zinken. 2007. *Cognitive Linguistics Enterprise*. London:

- Equinox, 11-60.
- Shi, J. & Y. Choi. 2018. A Cognitive Semantic Approach to the Polysemy of off, *영어영문학*21, 44, 155-174.
-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Reason, Thought and Imagin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övecses, Z.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80/2003.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 나익주 옮김. 2003.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 Langacker, R.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Linguistics*.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 Langacker, R.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 Langacker, R.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dden, G. & Z. Kövecses. 1999. "Towards a theory of metonymy," in K.-U. by Klaus-Uwe Panther & Gunter Radden, Amsterdam: John Benjamins. Radden, Gunter and Zoltan Kövecses. 17-59.
- Stefanowitsch, A. & Grice. 2006. *Corpus-Based Approaches to Metaphor and Metonymy*,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 Taylor, R. 2002. *Cognitive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yler, A. & V. Evans. 2003.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